

녹색바람, 전북지역 거세게 분다

국민의당, "6~8곳 승리" 분석 장세환·정동영, 상승세에 '주목' 합동유세 벌이는 등 자신감 드러내

제20대 총선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무너질 조짐이다. 전북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한쪽이 몰아주던 성향에서 벗어나 국민의당이 선전 오히려 안방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까지도 해도 '잠재적 위협'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최고치인 14%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공표규제일 이전인 지난 4~6월 전국 만 19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의 경우, 3월 4주차까지 한 달 넘게 8~9% 선에 머물다가 최근 2주 연속 상승하며 창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3월 4주차 33%에서 5주차 27%, 4월 1주차 24% 등 하락세다.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국민의당 전북도당 제20대 총선 후보들이 전주시 오거리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결과에 부응하듯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총선이 '새로운 호남 정치 기반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10개의 선거구 중 6~8개 지역구 확보 등 자체 분석을 내놓는 등 고무된 모습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우세가 접혀진다. 또한 대부분 선거구가 오차범위에서 치열하게 접전 중이거나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정동영(전주

병)과 장세환(전주 을) 후보 등 오랫동안 지역을 다져온 정치인들의 전 지역 석권 행보도 관심이다. 이들은 합동유세를 통해 표심잡기를 펼치는 등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북권 합동유세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동영 후보는 "이번 전북 선거는 2번 째 문재인을 재선임하느냐, 3번 째 정동영을 부활시키느냐하는 선거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능력 없는 야당,

무책임한 야당, 선거에 연전연패해도 책임자는 사람 없는 야당, 수명이 다한 야당"이라고 규정하고 "기호 2번은 이번 4.13 총선에 녹색바람에 추풍낙엽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 후보는 또 "광주는 이미 끝났고, 녹색바람이 전주로 북상하고 있다. 전주가 3번에 함락되면 전북정치는 부활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또 "친노 패권에 말 한마디 못하는 친노 3인방을 퇴출시키고, 전주와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정 후보는 전주시민들이 '정동영이 전주를 때렸는지' 궁금해 한다면서, "떠난 것

이 아니라 친노 패권에 의해 밀려난 것"이라고 말하고 "19대 총선 당시 친노는 전북의 원로 중진인 신건 강봉균 조배숙은 학살하고, 내게는 강남으로 가라고 압박했다"고 전북 전체가 친노 패권주의에 희생당했음을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도 국민의당 우세 분위기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이전 총선과 관련, 이번처럼 여론조사를 많이 한 적이 없었다. 그만큼 접전으로 불수 있다. 오히려 이전 전북에서의 녹색바람이 향후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4.13 총선 D-2 **당신의 한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더민주·국민의당 지도부, 전북 마지막 주말유세 화력 집중

20대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9일과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 당 지도부가 전북을 방문해 표심 구애를 위한 화력을 총동원했다. 야권 텃밭인 전북은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 당의 명운을 걸고 지원 유세에 펼치고 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9일 정읍, 익산 전주를 연이어 방문해 더민주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문 전 대표는 전주한옥마을 전통시장 앞에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전주·익산·정읍 방문 후보자 지원 나서
국민의당 김한길 전 선대위원장, 전주권 후보자들 합동 유세에 동참

"미우나 고우나 많이 부족해도 결국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당은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면서 "전략적인 투표로 강한 야당을 만들어나갈라"고 당부했다. 이어 "호남을 떠나면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대표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는 정당이 정권교체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교섭단체도 될까 말까 한 정당이 지지를 보내면 결국 여당

힘만 키워주게 될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한옥마을 유세에 이어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열린 합동유세에 참가했다. 국민의당 김한길 전 선대위원장과 최명길 부부는 10일 전북을 찾아 소속 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김 전 위원장은 전주권 국민의당 후보 합동 지원유세에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전라도를 찾아와서 말 몇 마디에 호남민심을 되돌리려 한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전라도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선주자는 있지 않았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호남사람들이 하나가 돼 반드시 2017년에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실현해 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약속하겠다"며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기상청 "13일 총선 '흐리고 비'"

오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어 투표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직전 18·19대 총선때도 선거날 비가 왔고, 이 탓에 두 선거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경상 남북도에 오는 오전 흐린 날씨를 보이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나머지 지역에선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개겠다. 기상청 예보대로 13일에 비가 내리면 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0대 선거까지 내리 3회 연속 '빛속 투표'를 하는 기록이 생기기 된다. /석용주 기자

▶ 매일 INDEX
2면 도내 총선 최종사전투표율 17.32%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제4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주최.주관:부안농악보존회,전주매일신문 ※후원:농림축산식품부,전라북도,부안군,부안군의회

※일시:2016.5.8.(일) 09:00~15:00 ※장소:부안군청 광장
문의: 063)584-4182 / Fax 063)584-3250 / 010-2425-4182

제4회 부안 마실 축제
5월 6일(금) ~ 5월 8일(일)